



모토해설-짧은 문장으로
300116는고 차세상을으며 수수께끼는우리들
다같이 아니라 함께하고, 미래를 위한 활동이다.
우리가 놓을수록 나의 미래는 예전처럼 되돌아온다.

0. 들어가는 글 (좋은 시나 글 없을까?) 나의 미래는 예전처럼 되돌아온다.

여행

우리 모두는 여행중이다. 언제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목적지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을 뿐더러, 그곳에 도달하는 지도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목적지의 모습은 단일한 것이 아니며, 그곳으로 가는 길도 수천 갈래는 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천 갈래 길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목적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성운동을 하는 것은 목적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눈을 절끈 감고 목적지까지 출발음치며 그만인 달리기시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움직이는 발자취 하나 하나가 소중한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답게 살기를 바란다. 이 바람이 아마도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여행을 하고 있다.

달과 입술,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중에서

후보자들 사진과 약력, 하고 싶은 말

정후보

정경아 (영교 98)

1979년 서울 출생

1997년 한성여고 졸업

1998년 홍익대학교 영어교육과 입학

영어교육과 여성학회 가입

동아리 파파 가입

1999년 영어교육과 교육부장

사회과학 학회 "새움" 학회장

동아리 파파 농활 추진 위원장

파파 봄농활 종상마을 마을대장

한총련 여름농활 도암1리 근로주체

12기 범청학련 통일 선봉대 활동

2000년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한총련 여름농활 도암1리 마을대장

2001년 22대 오마이뉴스 학생회장

16대 여학생회 학생회장 입후보

부후보

유화영 (법학 00)

1979년 전남 영광 출생

1998년 성심여고 졸업

2000년 홍익대학교 법학과 입학

동아리 와우풀물풀 가입

법학과 2학기 부과대

2001년 동아리 와우풀물풀 교양주체

6.23 국제 전범 재판 홍익대 대표

단결홍익 30일 반미 구국단식단 활동

여학생회 가을 대동제 자봉단 활동

16대 여학생회 부학생회장 입후보

1. 지금은 통일세상으로 가는 자주시대!

615이행투쟁 통일시대 여성의 역할은 \분단으로 인해 이남여성들이 자주성을 가장 억압받고 있는 사회형태

2000년 6월 평양의 거리는 꽃물결로 넘실거렸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산가족이 만났다. 이게 몇 년만이냐 서로 열싸안고 눈물을 훌렸다. 보는 이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경의선 복구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서울에서 신의주를 거쳐 유럽으로 여행갈 날도 멀지 않았다.

장기수 선생님들이 북으로 올라가셨다. 20대 청년으로 집을 떠나와 이제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핑클도, 태진아도 북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왔다.

그리고 1년 2001년 6월 15일 금강산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자고 토론회가 열렸다.

8월 15일에는 남과 북 해외에 사는 온 민족이 평양에 모여서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했다.

한총련도, 전여대협도 당당히 참가하였다.

남과 북의 여성도 만나 이후 여성통일한마당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세계 무역센터가 불타올랐다.

펜타곤도 상처를 입었다.

미국은 상처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전쟁을 시작하였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명분을 앞세워 전쟁하고 있는 보복전쟁으로 무고한 민중들이 죽어가고 또 다른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를 통해,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여성과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알고있는 이남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전쟁반대 투쟁에 나섰다.

인터넷대안언론 오마이뉴스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한국여성들의 긴급제안 평화쪽지 이어날리기'를 공동기획,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 전쟁반대 쪽지이어가기를 펼치고 있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는 현재 아프간 여성들의 실상, 세계 각국 여성들의 반전 움직임을 인터넷을 중심으로 알리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공동대표는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중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명동성당과 탑골 등에서 전쟁반대 집회를 진행하였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침묵시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이 함께 참여해 전쟁반대를 온몸으로 표현하셨다.

여성들은 함께 소리높여 외친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움직여야 세상도 바뀐다.

더 이상 전쟁과 분열은 안 된다!

반세기 민족의 가슴을 반으로 갈라놓았던 분단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21세기는 평화와 통일의 세기로 만들자!!!

2. 지금 여성들의 삶은 어떠한가? 홍익은 다른가?

1) 주체정세

여성노동자-조직력, 모성보호법 및 여성노동법 개정

여성농민-쌀투쟁, 충전로 농협본사 앞에서의 농성투쟁

2) 홍익의 여학우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잠깐 테스트 생리통으로 알아보는 나의 건강

생리통도 질병이다

생리통은 월경을 하는 여자라면 으레 누구나 겪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한방에서는 생리통을 명백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여자라면 생리통 따윈 생기지 않겠죠. 생리통은 실제로 몸의 전반적인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월경은 아름다운 것, 그렇지만 생리통은 처부셔야 하는 것. 지금부터 월경, 그리고 생리통에 관한 진실이 펼쳐집니다.

내 생리통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

당신의 생리통의 원인은 바로 이것!

1. 기체(氣滯)

당신은 기가 잘 소통되지 않는군요.

원인은 바로 당신의 마음!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해요. 되도록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항부자나 파뿌리를 끊여드시면 좋아요.

2. 어혈(瘀血)

당신은 기가 소통되지 못한 것이 오래되어 혈이 한 곳에 뭉쳤네요.

손발이 냉하거나 아랫배가 차지는 않으신지요? 원인은 장기간의 스트레스나 크게 충격을 받은 일, 혹은 외상입니다. 부추김을 드셔보세요. 특히 어혈은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으로 발전되니 쉬우니 반드시 치료를 해야합니다.

3. 혈허(血虛)

당신은 혈이 부족한 타입

원인은 원래 선천적이거나 불규칙한 당신의 생활습관이예요! 제때에 식사하고(인스턴트는 NO)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해요. 당귀차나 쑥을 다린 물이 좋습니다.

4. 기허(氣虛)

당신은 기가 부족한 타입이예요.

원인은 원래 약한 체질이거나 혹은 부실한 영양섭취, 여기에 보태서 잘 쉬지 못하고 무리한 활동을 함으로써 피로까지 축적되셨네요. 말씀 안 드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 인삼차, 황기차를 드셔보세요.

5. 혈열(血熱)

당신의 혈이 열을 받은 모양이예요.

평소에 코피가 자주 나거나 한달에 두 번 생리하지 않나요? 원인은 당신의 다혈질적 성격! 화르르 불타오르는 정의감을 잠시 고삐를 늦춰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위한 비방이랍니다. 연뿌리즙이 좋아요.

이제, 왜 생리통이 질병인지 아셨죠? 진통제 없이 참을 수 없다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구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15대 자주적 여학생회는? (평가)

2년 간의 공백을 딛고 세웠다는 것과 함께 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데서 올해 여학생회의 어려움은 예견되었다. 올초에 동양화과 토목과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많은 약속들도 다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나 2학기 들어서 계속 진행되었던 여성학 세미나와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등은 여학생회가 홍익의 여학우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4. 16대 자주적 여학생회는? (공약) 학우들과 함께 하며 힘이 되는 여학생회

기층단위 건설 -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일까?

복지 - 여학생샤워실 설치, 여휴를 종합문화공간으로

학우들속으로 가자 매일 벤치로 여학우들을 찾아갑니다

4학년 여학우들을 위한 특별한 제안 취업

반성폭력운동 제대로된 성폭력 규제 학칙을 만들자

기층강화

기획자보전과 소식지

홈페이지 강화

이북여성바로알기

각 선분에 제안 - 복지 학자 38대회 출범식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여성학 관련 강의 모니터링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현장

엄마와 함께 수필과 사진 콘테스트

성폭력 상담창구 개설

투표일과 장소 광고

홍익과담

같은 과 남학우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생리대자판기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학생휴게실이 어디에 있죠? 대학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여러저러한 문제들!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말 할 곳조차 없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

영하기 위해 앞서서 뛰는 곳 여학생회를 세우기 위한 작은 행동! 나의 한 표로 여학생회를 세우는데 큰 일을 해보아요!

11월 20, 21(화~수 10:00~19:00)일은 투표일입니다. 16대 여학생회와 36대 총학생회를 세우기 위한 소중한 한 발 내딛기! 꼭 투표합시다.

C동 1층 (문과대, 법경대, 사범대)

B동 휴게실 (경영대)

조형관 1층 (금디과, 동양화과, 산디과, 서미과, 시디과, 목조과, 도예과)

문현관 1층 (예술학과, 조소과, 판화과, 회화과)

T동 5층 (산공과, 컴퓨터과, 자율전공)

와우관 앞 (건축과, 신소재과, 기계과, 도시과, 건설도시공학부, 화공과, 자율전공)

P동 (토목과, 건설도시공학부, 전전부, 자율전공)